

# 유성은 “여전히 노래하고 있어요”

기스 루이와 신혼 “행복해서 사랑 노래 써져”  
“데뷔 10주년...꾸준히 내 모습 보여주고 파”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 코리아 시즌1’ 준우승자로 얼굴을 알린 지 10년. 가수 유성은에게 올해는 큰 변화의 시기다. 오디션에서 코치와 참가자로 만난 가수 백지영의 당시 소속사와 오랜 인연을 마무리하고 새 동지를 찾았다.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다시 다음 10년을 시작한다.

새 소속사 티알엔터테인먼트와 첫 호흡을 맞추는 곡은 디지털 싱글 ‘별을 따라가면 네게 닿을 수 있을까(별따라네)’. 무려 1년 10개월 만의 신곡이다. 그간 OST, 프로젝트 곡을 선보이긴 했지만 유성은의 디스코그래피를 채울 정식 음원은 꽤 오래 걸렸다. 유성은은 “내가 음악을 쉬거나 육아 휴직한다는 소문도 있더라. OST도 해서 공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름으로 음원을 내는 게 오랜만”이라며 웃었다.

‘별따라네’는 사랑하는 연인이 둘의 믿음과 희생으로 서로를 지켜낸다는 내용의 사랑 노래다. 풍성한 현악기가 주를 이루는 켈틱 팝(Celtic Pop) 장르다. 흡사 디즈니 영화 OST처럼 벅찬 감정을 들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노래를 부르는 유성은의 모습은 마치 디즈니 공주 같다. 유

성은의 ‘집으로 데려가 줘’ ‘마리화나’ 등을 작업한 이상인 작곡가가 곡을 쓰고, 유성은이 직접 작사했다. “코드 진행이 좋았어요. 후렴구 마지막에 코드가 꺾이는 부분이 매력적이더라고요. 가사가 없이 음악만 들어도 서사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것들이 상상됐어요.”

몽환적이고 드라마틱한 멜로디에 저절로 행복한 노랫말이 떠올랐다. 힙합 듀오 기스 루이와 결혼한 지 3년 차인 그의 현재 심경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가사를 많이 써본 건 아니지만 당시 감정이 많이 들어가요. 슬프면 우울하고 한탄하게 되는데, 행복해서 그런지 사랑 노래가 써지더라고요. 동화적 이면서도 고난과 역경을 딛고 더 단단해지는 느낌을 담으려고 했어요. 저희도 싸우고 힘들 때도 있지만 더 사랑하게 되고 단단해 지거든요. 나쁜 말은 쓰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자 동료인 루이도 가사를 보고 흡족해했다. 작업을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격려도 하면서 완성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남편과 평소 음악 이야기를 엄청 많이 나누진 않아요. 한 번 이야기를 나누면 길게 하고요. 서로 응원해 주고 칭찬해 주는 스타일이예요. 결혼 생활이 행복해요. 유

코드가 잘 맞아요. ‘이렇게 쓸 데 없는 소리를 해도 재밌네’라고 하죠.”

유성은은 공백기 동안 신혼 생활을 만끽하면서도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에 대해 골똘히 고민했다. 데뷔 때부터 알앤비(R&B)를 고집했지만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들이 다른 일도 허다했다. 알앤비 중에서도 전작인 ‘이대로 멈춰’ ‘마리화나’ 같은 슬로 잼을 지향한다는 그는 “내가 잘하는 음악이 언제 시기를 탈까 10년 내내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개인적으로는 이지 리스닝으로 편안하게 듣는 앨범을 내고 싶어요. 해외 팝에서는 이지 리스닝 곡이 유명한 게 많지만 한국에서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그런 트렌드한 음악을 하고 있었어요. 발라드 쪽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명 가수들의 코러스를 담당하던 유성은은 ‘보이스 코리아’에서 이효리의 ‘텐미닛(10 Minutes)’을 독보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하던 순간, 그는 소위 ‘대스타’가 되는 것도 꿈꿨다. 그는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백지영 코치님의 회사였으니까 ‘꿈이 뭐야?’라고 물었을 때 ‘50억 정도 버는 가수’라고 답하기도 했다”고 농담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발끝에도 못 미쳤지만 기회는 있다고 생각한다. 꾸준히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는 가수가 되고 싶다”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그리고 남들이 보고 싶은 걸 아는 게 쉽지 않아서 그걸 확실히 알고 싶다”고 했다.

“여전히 노래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대스타가 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불러주시는 분들 있어서 원동력이 생겨요.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성장했다’ ‘음악이 좋다’는 반응이 있었으면 해요. 그런 게 다음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 가수가 나온 지도 몰랐네’ 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랜만에 유성은이 컴백했네’라는 말이 나왔으면 합니다.”

신곡은 방송보다 관객과 직접 호흡하는 이벤트 위주로 활동할 계획이다. 한강이나 캠핑장 같은 편안한 곳에서 소소한 공연을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오는 25일 단독 콘서트 ‘리슨(Listen)’도 연다. “재작년에 비슷한 규모로 미니 콘서트를 했어요. 코로나 시기라 마스크를 끼고 했고, MR 공연이었어요. 이번에는 밴드와 함께하는 콘서트라 준비할 게 많아요. 셋리스트 구성도 다 해놨어요. OST 중에서도 라이브를 한 적 없는, 제가 애정 하는 곡 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20주년에는 규모가 더 큰 단독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콘서트를 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야 더 큰 무대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KSPO 돔(구 체조경기장) 같은 곳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곳에서 샘 스미스 공연을 보고 왔는데 이 정도 관객을 채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스티디 셀러가 돼야 가능한 일이다. 신곡이 나오자마자 한 번에 차트 상위권에 드는 것도 좋지만, 차트 끝자락이어도 노래 남아 있는 노래가 되길 바란다. “무슨 노래를 불러도 유성은이 부르면 좋다는 말이 좋더라고요. 나만의 색으로 표현했다는 거니까요. 노래를 잘하는 걸 넘어서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저 친구 울림이 있지’라는 기억이 남았으면 해요.”



## 아이브, 日서 대세 굳힌다...음방 연속 출연

4세대 K팝 간판 걸그룹 ‘아이브(IVE)’가 일본 대표 음악 방송에 출연한다.

4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브는 오는 6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스페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CDTV 라이브! 라이브!’에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날 아이브는 일본 방송 최초로 신보 ‘아이브 마인(I’VE MINE)’의 트리플 타이틀곡 중 하나인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무대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일본 데뷔곡 ‘일레븐 - 일본어 버전(ELEVEN - Japanese ver.-)’도 부른다. 또한 아이브는 오는 10일 방송되는 일본 최고 명성의 간판 음악 프로그램 TV 아사히 ‘뮤직스테이션’ 세 번째 출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아이브는 현지 데뷔 싱글 ‘일레븐’으로 일본 레코드 협회가 선정한 ‘골드 디스크(Gold Disc)’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5월 발매한 첫 번째 일본 앨범 ‘웨이브(WAVE)’로는 오리콘 데일리, 주간 앨범 차트 1위, 타이완레코드 전집 종합 앨범 차트와 빌보드 재팬 주간 톱 앨범 세일즈 차트 1위 등을 석권했다. 또한 일본 연말 가요 축제 NHK ‘홍백가합전’을 비롯해 TV 아사히 ‘뮤직스테이션’ 등에 출연했다.

지난 2월에는 첫 번째 팬콘 ‘더 프롬 퀸즈(The Prom Queens)’를 통해 5만7000명의 일본 팬들과 만났다. 특히 현지 첫 일본 단독 공연인에도 아레나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아이브는 오는 15-16일 일본 요코하마 K-아레나 요코하마(K-ARENA Yokohama)에서 첫 번째 월드 투어 ‘쇼 왓 아이 해브’를 펼친다.

## 세븐틴, 日 오리콘 차트 휩쓸어



대세 그룹 ‘세븐틴’(SVT)이 일본 오리콘 차트를 휩쓸고 있다.

3일 오리콘 최신 차트에 따르면, 세븐틴의 미니 11집 ‘세븐틴스 헤븐(SEVENTEENTH HEAVEN)’이 오리콘 주간 합산 앨범 랭킹(11

월 6일 자/집계기간 2023년 10월 23-29일) 1위에 올랐다.

통산 11번째 1위다. 세븐틴은 ‘주간 합산 앨범 통산 최다 1위 작품 보유 해외 아티스트’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세븐틴스 헤븐’은 이에 앞서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11월 6일 자)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세븐틴은 해당 차트에서도 7개 작품 연속, 통산 11번째 1위에 올라 ‘주간 앨범 통산 최다 1위 작품 보유 해외 아티스트’ 기록도 자체 경신했다.

세븐틴은 ‘세븐틴스 헤븐’으로 각종 차트에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K-팝 역사상 초동(발매 후 일주일간 음반 판매량) 500만 장을 넘긴 최초의 아티스트가 되면서 역대 초동(발매 후 일주일간 음반 판매량) 1위에 올랐다. 또한, 타이틀곡 ‘음악의 신’이 K-팝 남성 그룹 작품으로는 올해 최초로 멜론 톱100 1위를 찍기도 했다.

지난 2일 방송된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이번 활동으로 벌써 음악방송 2관왕을 안았다.

## ‘학폭 시비’ 수진, 첫 솔로 ‘아가씨’ 발매

‘학폭 시비’로 그룹 ‘(여자)아이들’을 탈퇴했던 수진이 솔로 데뷔를 예고했다.

4일 소속사 BRD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수진은 오는 8일 오후 6시 첫 솔로 EP ‘아가씨’로 대중 앞에 선다.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가씨’ 하이лай트 메들리에 있는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곡 ‘아가씨’를 포함해 ‘개화(開花)’ ‘선플라워(Sunflower)’ ‘타이타이(TyTy)’ ‘선셋(SUNSET)’ ‘블러드 레드 로즈(bloodredroses)’까지 총 6트랙의 하이лай트 구간이 담겼다.

나른하고 아련한 느낌의 ‘개화’를 시작으로, 묘하고 몽환적인 사운드로 귀가를 매료시키는 타이틀곡 ‘아가씨’, 설레는 감정과 수진의 사랑스러운 음색이 돋보이는 ‘선플라워’, 진심 어린 마음과 고마움을 담은 밝은 느낌의 ‘타이타이’, 서정적이고 포근한 감성으로 위로를 전하는 ‘선셋’, 마지막으로 수진의 매혹적인 보컬을 느낄 수 있는 ‘블러드 레드 로즈’까지 각기 다른 스타일의 6곡이 본 앨범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하이лай트 음원과 함께 다채로운 무드를 소화하고 있는 수진의 모습 또한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진은 때론 매혹적이고 시크하게, 때론 청순하고 사랑스럽게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편 서수진은 지난 2021년 2월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수진이 학창시절 다른 학생을 때리고, 돈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갑론을박 끝에 서수진은 같은 해 8월 (여자)아이들을 탈퇴했고, 이듬해 3월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그런데 서수진은 자신의 학폭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계속 호소했다.

그 해 8월 학폭 혐의 관련 무죄를 받았으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밝혔다. 학폭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자신 또한 피해자임이 인정돼 무죄(흔계)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학폭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지난 7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근황을 알리며 복귀를 예고했다.

뉴스스

## ‘오늘 컴백’ 제로베이스원, 앨범 샘플러 공개

그룹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이 신보의 음원 일부를 공개했다.

3일 0시 제로베이스원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미니 2집 ‘멜팅 포인트(MELTING POINT)’의 앨범 샘플러 영상을 게재했다.

제로베이스원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드라마틱스 형태의 앨범 샘플러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아홉 멤버는 각 곡의 분위기에 맞는 표정 연기를 선보였고,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각 멤버의 이야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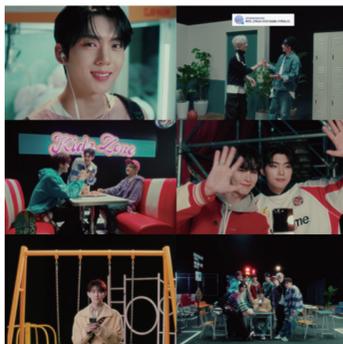
멤버들은 인형 뽑기를 하고, 춤 연습을 하고, 페스트푸드점에 가거나 파티를 즐기고, 무대

에 오르고, 그네를 타는 등 각자의 시선으로 신보의 음악을 전달했다.

타이틀곡 ‘크러시(CRUSH)(가시)’는 드럼, 베이스와 저지 클럽의 리듬이 가미돼 강렬하고 파워풀한 느낌을 담은 곡이다.

팬덤 ‘제로즈’의 사랑으로 꿈을 찬란하게 이뤄낸 아홉 멤버가 이제는 제로즈를 위해 더 단단한 존재가 돼 끝까지 그들을 지켜내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이외에도 신보에는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녹는점’에 비유한 ‘멜팅 포인트’, 모든 가능성이 펼쳐진 새로운 세계로 ‘너와 떠나는 모습’을 동화처럼 그린 ‘테이크 마이 핸드’(Take My Hand),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공간을 경험하



게 표현한 ‘키즈 존’(Kidz Zone), 사랑하는 이의 밤이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자정까 ‘굿 나이트’(Good Night) 등이 수록됐다. 6일 발매.